“작은 관심이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동행 〈2〉

박상일 올리브퍼니처 대표

원목가구 공방 사회적기업 운영
장애인센터 봉사 계기 나눔 실천
휠체어 거치대 제작·쌀 1t 기부
퇴소 청소년 위해 생필품 지원도

“봉사는 한 사람의 조그마한 관심부터 시작합니다.”

수제 도마 등을 제작하는 원목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로 지역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올리브퍼니처 박상일 대표(44)의 이야기다.

박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20대 서구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봉사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몸소 피부로 체감했다.

당시 박 대표는 신체 조건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좀 더 세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박 대표가 지난 2015년 맞춤형 휠체어 거치대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박 대표의 봉사 정신과 원목 공방을 운영하며 탁월한 손재주가 합쳐진 나눔 활동 첫 작품이었다.

박 대표는 “휠체어 거치대가 사용자들의 신체에 맞게 별도로 제작되고 있지 않았다”며 “신체 조건에 따라 휠체어에 앉는 자세가 조금씩 다를 텐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직접 신체에 맞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게나마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을 이어오던 박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는 센터에 쌀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일상적인 생활과 자립을 원한다고 박 대표는 생각했다.

수제 도마 등을 제작하는 원목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박상일 올리브퍼니처 대표가 “봉사는 한 사람의 조그마한 관심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나눔 물품으로 쌀을 선택했다.

당시에는 박 대표 혼자 쌀 100kg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박 대표의 지인들과 손님들도 관심을 갖고 쌀 기부에 동참해 1,20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남 모르게 혼자 나눔 활동을 하던 중 지인들도 점점 관심을 갖더니 자발적으로 쌀을 보내줬다”며 “쌀을 기부하기 위해 트럭에 싣을 때 무겁고 힘들었지만, 살면서 제일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금 박 대표의 일상과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의 삶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이러한 선행에 박 대표의 가족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아내와 의기투합해 아동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친환경 수제 도마와 식료품을 지원했다.

박 대표는 “언젠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독립한다면 손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마를 함께 넣었다”며 “지역 곳곳에 사람들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찬기 기자

‘의료사고 의혹’ 척추병원…마취제 부작용 결론

경찰, 의료진 등 7명 불송치 결정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중 숨진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사망 환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7명 입건자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일 광주 A척추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졌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A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수술 중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해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봐 기존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A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 천공이 발견돼 3개월 입원 치료받다 숨진 추가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별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21년 대리수술 행위로 내부 고발을 당한 끝에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대리수술 추가 고발이 접수돼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송치(기소 의견)되기도 했다. /최환준 기자

택시 추돌한 렌트카 운전자 잠적…경찰 추적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렌트카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한 벤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A씨(63·여)의 택시를 추돌하고 달아났다.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27)의 소나타도 2차 피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조치없이 달아난 후 잠적했고 사고 차량은 치평동 일대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운전자 신병 확보 즉시 음주 측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무자본 갭 투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일당 구속

담보대출 받아 아파트 매입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 방식을 통해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가로챈 40대 2명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 이용해 광양지역 아파트 173채를 사들인 임대사업자 A씨(43)와 B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에서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현재까지 102억원으로 추산된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경찰, 마약사범 잇단 검거

광주·전남경찰이 마약사범을 잇달아 검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 등 30대 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로 광산구 수완지구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30만원어치를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남경찰서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남성 5명을 구속했다. 양식장 노동자인 이들은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숙소에서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 ‘야바’(YABA)를 태운 연기를 수시로 들이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구매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방수제·바닥재·흔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 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 입니다.
특허청 품질보증 D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